#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

## 도의회 예결특위, 연찬회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 돌입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황의탁 위원장, 무주)는 28일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실과 무주 라봄리조트에서 연찬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2020년도 전북도 및 전북도교육청 예산안과 2019년도 전라북도 제3회 및 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전북도의회 예결위는 12월 2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사전 학습과 충분한 토론으로 예산심사 능력을 향상시켜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연찬회를 기획했다며, 이번 연찬회는 심사준비 및 연말 사업마무리로 바쁜 집행부 직원의 편의를 위해 도의회 내에서 집행부의 예산안 청취를 모두 끝내고 예결위원들의 연찬은 장소를 옮겨 별도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예결위원들은 도의회 회의실에서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과 도교육청 행정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정리추경안에 대한 개요 설명 청취와 함께 실국별 주요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 무주 라봄리조트에서는 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으며 집중적인 토론을 펼쳤다.

한편, 전북도와 도 교육청은 지난 11일 전북도 7조8317억원(전년대비 7787억원 증가, 11.0% ↑)과 도 교육청 3조5351억원(전년대비 660억원 증가, 1.9% ↑)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편성방향의 타당성,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 예산 등 비효율적인 예산은 없는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예산 관련 각종 평가 결과가 잘 반영되었는지, 유사·중복사업은 없는지, 신규사업의 경우 필요성 및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을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 위원장은 "내년에도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고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할 예정"이라며, "꼼꼼하고 철저한 심사로 도민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송성환 전북도의회의장이 28일 새만금 투자차 전북을 방문한 중국 종합건설업체 마이누어 공업기술 유한회사 랴우 둥판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 "새만금은 중국과 가까운 환황해권 물류 거점지역"

## 송성환 의장, 중국 종합건설업체 대규모 투자 요청
## 광동성 마이누어 공업기술 방문단과 간담회 가져

송성환 전북도의회의장은 28일 새만금 투자차 전북을 방문한 중국 종합건설업체 마이누어 공업기술 유한회사(MSC) 랴우 둥판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대규모 투자를 요청했다.

송 의장은 "새만금은 중국과 거리가 가깝고 환황해권 물류 거점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개발현장을 둘러보면 투자 가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에서도 투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MSC사에서 투자를 결정하면 전라북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랴우 둥판 회장은 "MSC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부르즈 칼리파 타워 건설은 물론 광저우 TV 타워, 태국 공항, 싱가포르 박물관 타워 등의 공사에 참여할 만큼 세계적인 와이어 생산 기술을 갖고 있다"면서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뒤 한중 경협지구 투자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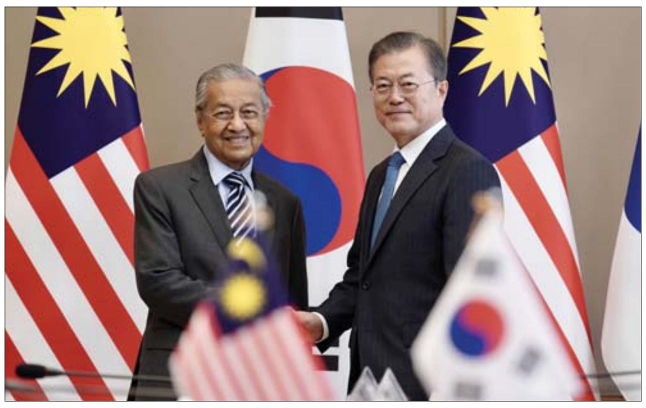
한편 MSC사는 건물의 전면 시스템과 케이블지지 구조의 연구, 설계, 제조, 설치 및 판매를 주로 하는 중국 굴지의 종합건설기업이다.

/김진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한·말레이 정상, FTA 체결 노력 지속키로… 협력 모범사례 계속 창출

## ICT 협력 MOU 등 4건 체결



문재인 대통령과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가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와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갖고 정보통신(ICT) 협력 등 두 나라 간 실질 협력 방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마하티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36분부터 11시 50분까지 74분 간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계기로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과 양자 회담을 통해 보다 깊은 신뢰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9개국 정상과 잇딴 정상회담을 가져왔다. 마하티르 총리와의 회담을 끝으로 일주일 간 달려온 문 대통령의 대(對) 아세안 외교도 막을 내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마하티르 총리의 재취임 이후 첫 공식 방한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마하티르 총리의 시대를 선도하는 혜안으로 말레이시아가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고 평가하며 총리의 지도력에 경의를 표했다.

또 두 나라 간 협력 범위가 ▲4차산업혁명 공동대응 ▲스마트시티 등 두 나라 국민이 체감 가능한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의 '신(新)남방정책'과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을 조화롭게 접목해 나가면서, 정책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특히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동번영 비전 2030'의 핵심 경제활동 상당수가 두 나라 간에 논의되고 있는 주요 경제협력 분야와 일치한다는 것에 주목하고 향후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달 5일 발표된 '공동번영 비전 2030'은 말레이시아 장기 국가 발전 로드맵을 말한다. 2021년부터 30년까지 ▲디지털 경제 ▲4차산업혁명 ▲콘텐츠 ▲할랄산업 허브화 ▲신재생 에너지 ▲녹색경제 ▲스마트·고부가가치 농업 등 미래를 책임질 총 15개의 핵심 경제활동 방안이 담겼다.

한·말레이시아 두 정상은 양국의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동안 협의해 온 성과를 기반으로 FTA 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지난 3월 '할랄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이후, 두 나라 할랄산업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할랄산업 허브인 말레이시아와 상호 '윈-윈' 하는 협력의 모범사례를 계속해서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전기차, 로봇공학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0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국제 IT 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통한 5G, 스마트시티 등 ICT 협력이 더 강화되기를 기대했다.

이외에도 인적교류, 기술지원·공유 등 말레이시아 디지털 정부 추진 과정에 실질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풀라우 인다(Pulau Indah)' 가스복합 발전소 사업이 원활히 진행돼 말레이시아 친환경 발전 산업 및 전력 공급에 한국이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계속 견인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마하티르 총리와 말레이시아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계속해서 적극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한편 두 정상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ICT 협력 ▲디지털정부 협력 ▲보건의료 협력 ▲상·하수 관리 협력 양해각서 등 총 4건에 대한 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뉴시스

# 도의회 농산업경제위, 전북경제 개선위한 스터디 개최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경제 체질 개선 모색을 위한 2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여섯 번째 스터디 모임을 이어갔다.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8월 19일 자체 스터디 결성을 시작으로 경제·산업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 등의 스터디를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스터디는 해외수출 절차와 FTA라는 주제로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임현미 해외시장팀장을 초청해 특강을 듣고 질의응답과 토론시간을 가졌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급부상하고,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성을 위한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최 등 빠르게 변화하는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FTA현황을 살펴보고, 도내기업 수출절차와 해외시장 현황 및 전망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용구 위원장은 "전북도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를 베트남에 구축하고 내년에 신규 1개소를 추가 구축하여 대응하고자 하는데 스터디를 통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철수 부위원장은 "세계적인 경기둔화에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겹치면서 세계 통상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대응해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이였다"고 밝혔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임현미 해외시장팀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 마케팅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인력부족과 비용문제로 어려움이 있는데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전북경제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